

디지털 자산관리(웰스테크)의 글로벌 트렌드 및 사례조사

※ 최근 자산관리(WM) 시장의 성장과 함께 플랫폼과 IT기술을 활용하여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웰스테크(Wealth+Technology)' 시장의 글로벌 트렌드와 사례, 관련 법령을 조사

2020년 9월 22일
국제부 김한조

주요 내용

1 플랫폼 비즈니스와 금융분야의 활용

- 플랫폼 비즈니스는 두 개 또는 그 이상의 그룹의 양방향소통과 교환을 편리하게 하는 '플랫폼'을 통해 가치를 창출하는 사업
 - 전통 기업의 84%가 자신의 플랫폼을 보유하거나 활용하고 있으며, 최근 코로나 위기 속에 플랫폼 비즈니스는 더욱 활성화
 - 금융분야에서도 지점, 인력이 필요없는 IT기반의 인터넷 전문 은행·증권과 모바일 결제플랫폼의 등장*은 새로운 생태계를 창출

* 분야별 핀테크 활용비율: 자금 이체/결제(75%), 보험(48%), 저축/투자(34%), 재무설계(29%), 대출(27%)

2 웰스테크(WealthTech)의 활용과 WM산업내 영향

- 웰스테크는 효율적 비용으로 자산관리 프로세스를 개선하는 기술로, 로보어드바이저*와 퇴직연금, 소액투자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

* '20년말 웰스테크를 통한 운용자산은 약 1조달러 수준

- 미국 찰스슈왑의 분석에 따르면 '25년까지 미국인의 약 60%가 웰스테크를 통해 자산관리를 받을 것으로 전망
- 웰스테크의 활용은 WM의 대중화, 금융기관 IT기술투자 확대, 플랫폼 활용 다변화, 정보가치와 사이버보안 중요성 부각 등 영향

3 웰스테크 플랫폼의 분야별 현황

- 웰스테크 플랫폼들은 수수료 효율화, 특화서비스 제공, 관리 편의성 확대 등을 특징으로 대부분이 '10년 이후 설립

- 로보어드바이저, 로보-퇴직연금, 소액투자, 디지털 중개 등에서 Wealthfront, RobustWealth, Stash, Robinhood 등 새로운 플랫폼 발전
- 최근 트렌드는 사회적 책임투자 확대, 규제 강화로 인한 혁신, 처리절차 간소화, 고객 맞춤형 서비스 경쟁, 수수료 경쟁 강화 등임

4 해외 금융투자업계의 웰스테크 활용

- 해외 금융투자업계에 자산관리(WM)가 새로운 수익원으로 부상* 하며 WM분야의 전과정에 걸쳐 웰스테크 활용 증대

* 글로벌 투자은행(12개)의 WM분야 수익비중은 '10년 13% → '20년 24%(예상)로 확대

- BofA, JP모건 등 글로벌 IB와 BlackRock, Vanguard 등 자산 운용사들은 ① 자체 디지털 자산관리 체계 구축 및 솔루션 개발, ② 전략적 M&A, ③ 웰스테크와 제휴 등 다양한 방식으로 대응

5 웰스테크 관련 법령 및 규제

- 미국, 유럽은 웰스테크 플랫폼을 기존 투자자문업자와 브로커-딜러 등 금융서비스업자와 동일하게 규제하나,
 - 영국, 호주는 '규제 샌드박스'를 통한 유예제도를 활용하며, 홍콩, 싱가포르 유사하거나 진입요건 완화 등 지원책 추진
 - 미국 'Regulation S-P, S-ID'와 유럽 'GDPR' 등 개인정보보호와, EU 사이버보안법, CPMI-IOSCO의 사이버보안 원칙 등 관련 규제 강화 추세

6 시사점

- 향후 아시아 지역과 국내 자산관리 시장의 성장가능성은 매우 높으며, 업계는 이에 대비한 웰스테크 기반 WM서비스 강화 필요
 - 미국 정권교체와 글로벌 친환경 정책 추진 등의 변화와 코로나 이후 밀레니얼세대의 진입은 다양한 플랫폼 개발의 기회 제공
 - ⇒ 웰스테크는 위협이 아닌 도약을 위한 필수 요소로, 업계내 활발한 제휴와 협력이 일어날 수 있도록 선제적인 규제체계 마련 필요

목 차

<주요 내용>	1
I. 플랫폼 비즈니스와 금융분야의 활용	4
1. 플랫폼 비즈니스 개요	4
2. 금융산업의 IT기술 활용	5
II. 웰스테크의 발전과 기존 WM산업내 영향	6
1. 웰스테크(WealthTech) 개요	6
2. 웰스테크가 WM산업에 미치는 영향	7
III. 웰스테크 플랫폼의 분야별 현황	8
1. 웰스테크 플랫폼의 특징	8
2. 웰스테크 플랫폼의 분야별 사례	9
3. 웰스테크 플랫폼의 최신 트렌드	15
IV. 해외 금융투자업계의 웰스테크에 대한 접근방안	16
1. 해외 금융투자업계의 대응	16
2. 금융투자업계의 웰스테크 활용사례	17
V. 웰스테크 관련 법령 및 규제	21
1. 주요 국가별 금융서비스 규제	21
2. 개인정보보호, 사이버보안 규제	23
VI. 시사점	24

I. 플랫폼 비즈니스와 금융분야의 활용

※ 해외 금융투자업계에서 기존의 금융 서비스와 IT기술 기반의 플랫폼이 결합된 플랫폼 비즈니스가 발전하며, 자본시장의 새로운 변화를 주도

1. 플랫폼 비즈니스 개요

- **(정의)** 플랫폼 비즈니스*는 두 개 또는 그 이상의 그룹의 양방향 소통과 교환을 편리하게 하는 '플랫폼'을 통해 가치를 창출하는 사업
 - ※ 플랫폼 비즈니스는 생산으로부터 분배, 마케팅, 소비자에 이르는 기존의 선형적인 파이프라인(Pipeline) 비즈니스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많이 사용
 - 디지털 기반으로 자원을 직접 소유하지 않고 가치를 창출할 수 있고 빠른 성장이 가능한 장점으로 여러 산업에서 활용
- **(특성)** 플랫폼의 5대 특성은 ①사업경계 파괴, ②생태계 기반 ③네트워크 효과 ④승자 독식 ⑤양면(다면) 시장구조이며,
 - 플랫폼의 확산으로 영향을 받은 5대 산업분야로 ①모빌리티 ②유통 ③소비재 ④금융 ⑤헬스케어를 선정(KPMG보고서, '19년)
- **(발전 현황)** '19년 맥킨지의 보고서에 따르면 전통 기업의 84%가 자신의 플랫폼을 보유하거나 다른 플랫폼을 활용하는 가운데,
 - 아마존, 페이스북, 구글(유튜브) 등의 플랫폼 기반 서비스는 이미 우리 생활 전반에서 활용되며, 최근 코로나 위기속에 더욱 활성화

【(표-1) 활동 분야에 따른 플랫폼 기업】

분야	관련기업
서비스 시장(Service Marketplace)	우버, 호텔스닷컴, 에어비앤비
상품 시장(Product Marketplace)	아마존, 알리바바, 이베이
지급결제(Payment)	페이팔, 스쿼어, 구글월렛
투자(Investment)	서클업, 렌딩클럽
소셜 네트워킹(Social Networking)	페이스북, 링크드인
폐쇄형 개발(Closed Development)	트리디움, 세일즈포스
통제 개발(Controlled Development)	애플, 윈도우10
개방형 개발(Open Development)	안드로이드, 리눅스
콘텐츠(Content)	유튜브, 인스타그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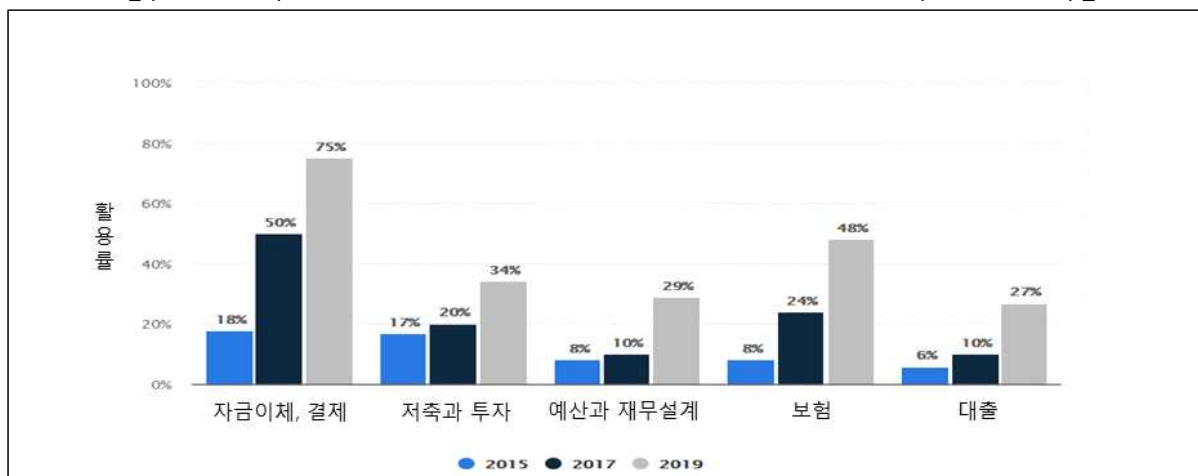
2. 금융산업의 플랫폼 활용

□ **(기술기반의 혁신)** 금융은 규제산업에 속하는 특성상 혁신기업의 등장이 어려우나, 최근 핀테크*기업 등이 새롭게 등장하며 혁신을 촉진

※ 핀테크는 '90년대 금융시장에 도입된 신기술이라는 용어로 시작되었으며, '08년 금융위기 전후 암호화폐, 블록체인 등의 등장과 함께 널리 알려짐

○ 지점, 영업인력이 필요없는 기술기반의 인터넷 전문 은행·증권과 각종페이(Pay) 등은 플랫폼을 중심으로 새로운 생태계를 창출

【(그림-1) 금융산업 분야별 핀테크 활용비율(단위: %)]



자료: Statista

□ **(금융 플랫폼의 진화)** 금융 플랫폼의 활용은 금융기관 점포의 대면서비스에서 컴퓨터, 모바일을 통한 비대면서비스로 진화

○ 증권계좌 개설, 자산관리 및 금융상품 해지까지 모든 프로세스의 비대면 처리뿐만 아니라 업계 공동의 블록체인 플랫폼까지 추진

◆ 최근 자산관리(WM)의 성장과 함께 IT기반의 플랫폼을 활용한 웰스테크(WealthTech)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음

☞ 미국을 중심으로 해외 웰스테크 산업의 현황, 분야별 사례, 관련 법령 조사를 통해 국내 자산관리시장에 대한 시사점을 검토

II. 웰스테크의 활용과 기존 WM산업내 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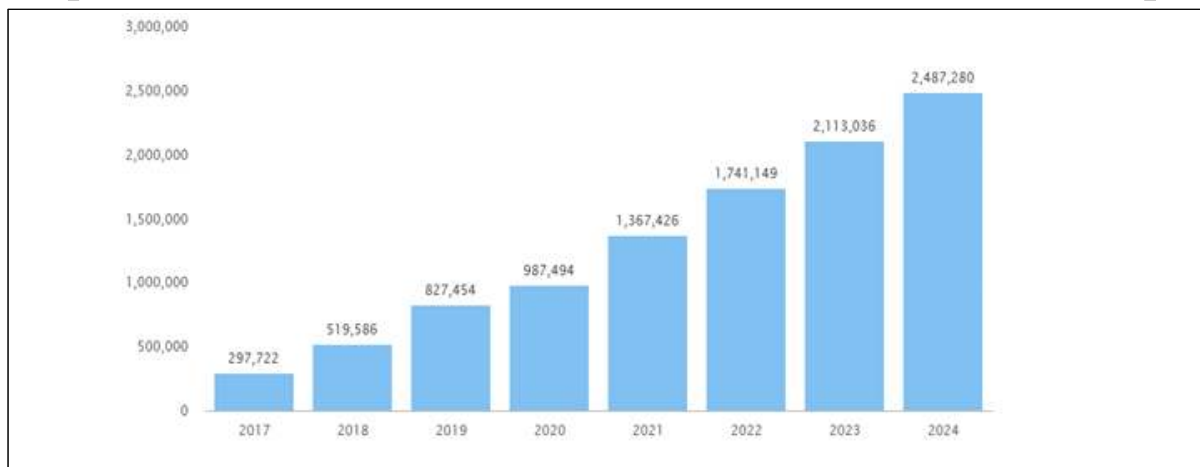
※ 핀테크의 확대로 자산관리(Wealth Management)에 IT기술과 플랫폼을 활용하는 'Wealth Tech*'가 발전하며, 자산관리의 대중화(초고액자산가→일반투자자)를 선도

* Wealth와 Technology의 합성어로 자산관리 프로세스를 위한 디지털 솔루션을 의미

1. 웰스테크(Wealthtech) 개요

- (개요) 핀테크의 분야중 웰스테크(WealthTech)는 효율적인 비용으로 자산관리와 투자 프로세스를 개선하는 기술을 의미
 - 웰스테크의 가장 잘 알려진 분야는 로보어드바이저(RA)로 고객의 투자 포트폴리오를 결정하는데 있어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이용하는 방법임
 - 최근 인공지능(AI), 자연어처리(NLP), 머신러닝, 바이오메트릭* 기술을 활용하여 퇴직연금, 디지털 중개, 소액 대출, 투자 분석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
 - * 하나 이상의 고유한 신체적, 행동적 형질에 기반하여 사람을 인식하는 방식
- (웰스테크 시장 규모) '20년말 웰스테크를 활용한 자산관리 규모는 약 9,874억달러 수준이며, 향후 5년간 크게 성장할 것으로 기대
 - 美최대 온라인 증권사 찰스슈왑의 분석에 따르면 '25년까지 미국인의 약 60%가 웰스테크를 통해 자산관리를 받을 것으로 전망

【(그림-2) 웰스테크를 활용한 자산운용 규모(단위: 백만달러)】



자료: Statista

2. 웰스테크가 WM산업에 미치는 영향

- **(WM산업의 대중화)** 전통적으로 자산관리는 초고액자산가(HNWD)를 대상으로 제한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이었으나,
 - 플랫폼 활용으로 소액자산가들의 진입장벽이 낮아지고, 비용 부담이 감소됨에 따라 WM서비스가 대중화(Democratization)됨
- **(금융기관 IT투자 확대)** 빅데이터와 AI를 활용한 플랫폼 기반의 자산관리는 전통적인 WM서비스에 비해 비용구조가 효율적임
 - 대형 금융기관들은 자체 운용 틀을 개발하거나 핀테크 회사들에 대한 투자, 협력을 통해 웰스테크 분야에 참여
- **(플랫폼 활용 다변화)** 핀테크 업체들의 자산관리분야 진입으로 인한 시장경쟁이 확대로, 서비스 차별화를 위한 다양한 플랫폼 출현
 - 은퇴세대를 위한 퇴직연금, ESG책임투자 특화 플랫폼, 젊은세대를 위한 소액투자 등 계속 변형된 형태의 서비스 플랫폼 출현
- **(정보가치의 중요성 부각)** 플랫폼들은 고객정보의 예측 분석을 통해 기술개발에 대한 인사이트를 얻게 되며, 정보는 생존에 중요한 요소
 - 고객의 행태, 니즈 등에 대한 다양한 정보의 필요성은 웰스테크가 발전함에 따라 더욱 확대되어 정보자산의 가치는 계속 상승할 전망
- **(사이버보안의 중요성 확대)** 웰스테크는 고객 정보의 축적, 분석, 전송 기술을 바탕으로 서비스를 제공함에 따라 사이버보안의 중요성 확대
 - 미국과 유럽의 개인정보 취급 및 보안에 관한 규제와 법령이 도입되고 있으며, 국제기구들도 사이버보안에 관한 원칙 제시*

* 미국의 Regulation S-P와 유럽의 GDPR, CPMI-IOSCO Guidance 등

III. 웰스테크 플랫폼의 분야별 현황

※ 웰스테크 플랫폼은 투자 기회뿐 아니라 고객의 투자목적, 사회적 지위, 위험 성향 등을 다양하게 반영하고, AI등을 활용 인간의 개입을 최소화함으로써 서비스 비용을 최소화

1. 웰스테크 플랫폼의 특징

- **(주요 특징)** 자산 관리의 고객군을 중산층, 밀레니얼 세대까지 확대시키는데 기여하고 있는 웰스테크 플랫폼은 다음과 같은 특징
 - 수수료 효율화: 최소 가입 금액, 계좌 유지금액, 계좌유지 수수료 등을 낮추거나 없애고, 거래수수료 대신, 소액의 월 구독료 부과
 - 특화서비스 제공: 주식 중개에 있어 소수단위 거래(fractional trading)나 암호화폐 거래, 리워드 등 투자자의 니즈에 맞는 서비스 제공
 - 관리편의성 제고: 직불카드 이용, 은행 계좌, 투자계좌를 하나의 플랫폼을 통해 관리함으로써 고객의 편의성 제고
 - 신생업체 진입증가: 일부 회사*를 제외한 거의 모든 플랫폼들은 '00년대 이후 등장했으며, 이 중 절반 이상이 '10년 이후 설립

* Additiv('98년, 스위스): B2B 포트폴리오 관리 회사

- **(서비스 분야)** 웰스테크 플랫폼은 로보어드바이저 이외에도 다양하게 발전하고 있으며, 6가지 주요 서비스 분야와 서비스 업체는 다음과 같음
 - ① 로보어드바이저(Robo-advisor): Wealthfront, Betterment
 - ② 로보-퇴직연금(Robo-retirement): RobustWealth
 - ③ 소액투자(Micro-investment): Acorns, Stash
 - ④ 디지털 중개(Digital brokers): eToro, Robinhood
 - ⑤ 투자지원(Investment tools): Xignite, Investcloud
 - ⑥ 포트폴리오관리(Portfolio management): Additiv, Addepar

2. 웰스테크 플랫폼의 분야별 사례

① 로보어드바이저(Robo-advisor) 사례: Wealthfront

설립연도	2008년	위치	미국 실리콘 벨리
총투자유치금액	\$204.5M	투자자	DAG벤처, Spark캐피탈 등 투자자 38명
인수회사	1건(Grove, '19.8월)	관련 규제당국	SEC, FINRA
서비스분야	투자일임	월다운로드	16,326건(Google Play, Itunes이용)

- **(회사 개요)** '08년 미국 실리콘벨리에서 설립된 로보어드바이저 분야의 Top-Tier회사로 자산관리 서비스의 전과정 자동으로 진행
 - '19.8월 재무 설계(Financial Planning)와 Self-Driving Money*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스타트업인 Grove를 인수
 - * 자율주행(Auto-pilot)과 같이 고객의 계좌에서 자동으로 청구서를 지불하고 나머지 자금을 투자, 저축 계좌, 부채 상환 등에 최적화하여 할당
- **(서비스 방식)** 고객들이 자산, 개인연금, 퇴직연금 등 다양한 정보를 입력 시 현재 재무상태와 은퇴시점 계획 자동 분석
 - 투자 결정 시 투자위험성향, 자금 필요시기에 대한 다양한 질문이 제공되며, 분석 결과를 토대로 고객 본인이 포트폴리오 선택*
 - * 통상 ETF로 운용되며, 10만불 이상의 고객을 대상으로는 주식투자나 뮤추얼 펀드 추천
 - 최소 계좌 금액은 \$500, 수수료는 연간 자문비용은 계정잔액의 0.25%로 서비스 구독료 형태이며, 거래 수수료, 자금이체 수수료 등 없음
- **(특화 서비스)** 고객의 일상적인 투자계획 뿐 아니라 주택구매·학자금 마련과 같은 목적 달성 지원 신용대출 투자 손실에 대한 세금효과 분석 등 제공
 - 온라인 상담기능은 별도로 제공되지 않으나, 10만불 이상의 고객에 대해서는 별도로 상세한 위험분석기능을 제공
 - 한편, 계좌와 연계된 직불카드 사용이 가능하며, 신용카드 납입 대금·임대료에 대한 자동 지불 설정 등 추가 기능 제공

② 로보-퇴직연금(Robo-retirement) 사례: Robustwealth

설립연도	2015년	위치	미국 뉴저지
총투자유치금액	-	투자자	PEAK6, Walden Venture Capital
인수회사	Principal 그룹에 인수(18.5월)	관련 규제당국	SEC
서비스분야	투자일임	월다운로드	37,811건(Google Play, Itunes이용)

- **(회사 개요)** '15년 미국 뉴저지에서 설립되었으며, '17년 로보어드바이저 출시 후 '18년 Principal Financial Group에 인수됨
 - '19.7월 Principal은 퇴직연금 롤오버(Rollover)* 시장을 타겟으로 Wells Fargo의 Retirement&Trust를 인수하며 퇴직연금 분야 강화
 - * 퇴직연금 계좌 간 자금을 옮겨 퇴직연금을 유지하는 것, 401(k) 가입자가 은퇴 시 세제 혜택 유지를 위해 개인퇴직연금(IRA)으로 자금을 옮기는 것이 대표적
 - '19.10월 Principal은 Robustwealth 로보어드바이저를 연계하여 로보퇴직연금 서비스 출시
- **(서비스 방식)** 로보와 전문가가 결합된 하이브리드 방식을 통해, 은퇴 및 연금 계획 설정, 퇴직연금 포트폴리오 관리
 - 투자위험 허용 범위, 목표 은퇴 연령, 은퇴 후 자금사용 목적 등을 기반으로 맞춤형 포트폴리오가 설정되며 변경 가능
 - 최소투자금액은 1,000달러, 연간 자문비용은 계정 잔액의 0.4%이며, 주로 뮤추얼 펀드와 ETFs(Active or Passive) 등에 투자
- **(특화 서비스)** 포트폴리오 관리대상 계좌는 401(k)계좌와 개인 퇴직연금계좌(IRA)이며, 은퇴 후 IRA로의 연장(롤오버) 옵션 제공
 - 고객의 입금, 인출, 이익 및 손실 현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맞춤형 포트폴리오에서 벗어날 경우 자동으로 재조정
 - '20.8월 직원수 100명 미만인 소기업들을 대상으로 서류작업 간소화와 비용 효율화를 위한 401(k)계좌 관리 솔루션 출시

③ 디지털 증개(Digital brokers) 사례: Robinhood

설립연도	2013년	위치	미국 실리콘 밸리
총투자유치금액	\$2.2B	투자자	IVP, Sequoia Capital 등 투자자 56명
인수회사	1건(Market Snacks, '193월)	관련 규제당국	SEC, FINRA
서비스분야	브로커-딜러	월다운로드	690,148건(Google Play, Itunes이용)

□ **(회사 개요)** '13년 미국 실리콘 밸리에서 설립된 디지털 브로커로 온라인(웹사이트, 앱)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

- 무점포 영업을 하는 제도권 금융회사로 美증권거래위원회(SEC)에 등록된 브로커이자, 美금융산업규제기구(FINRA)에 의해 규제를 받음

□ **(서비스 방식)** 주식거래 플랫폼을 중심으로 옵션, ETFs, 미국 예탁 증권(ADRs) 및 장외증권(OTCs) 거래 가능

- 거래종목은 약 1만여개이며, 1,700여개 종목에 대한 평가, 위험 등을 분석한 전문가 보고서 제공

- 최소 계좌금액이 없고, 거래 수수료는 무료*, 유료 구독 프리미엄 서비스를 제공하며 프리미엄 서비스를 통해 수익 창출

* 단, 보관은행에서 부과하는 ADRs 보관비용, 규제당국에서 부과하는 거래비용 등은 부과

□ **(특화 서비스)** 고객계좌와 연동된 직불카드, ATM 입출금 기능이 제공되며, 투자되지 않은 현금은 은행에 예치*되어 연 0.3% 수준의 이자 제공

* 6개 제휴은행에 예치 가능, 은행 당 25만 불 한도로 美예금보험공사(FDIC) 보험 제공

- 프리미엄 서비스는 신용 거래(계좌보유액 대비 한도 상승)를 지원하며, 시간외거래(개장 전 30분간, 마감 후 120분간) 가능

- 최근 플랫폼내 암호화폐 거래 기능을 제공하는 등 밀레니얼 세대의 니즈를 충족하기 위한 노력 계속

※ 암호화폐 기능 담당 자회사 Robinhood Crypto는 SEC, FINRA 미등록

④ 소액투자(Micro-investment) 사례: Stash

설립연도	2015년	위치	미국 뉴욕
총투자유치금액	\$302.4M	투자자	Goodwater Capital 등 투자자 10명
인수회사	-	관련 규제당국	SEC, FINRA
서비스분야	브로커-딜러, 투자자문	월다운로드	633,987건(Google Play, Itunes이용)

□ **(회사 개요)** '15년 미국 뉴욕에서 설립된 디지털 브로커로 1주 미만 주식투자가 가능한 주식 소액투자* 플랫폼 제공

* 최소 5달러로 주식과 ETF에 투자 가능

○ 밀레니얼 세대를 타겟으로 소액투자, 장기투자 관련 혁신금융 서비스를 개척하였고, 현재 500만 명 이상의 투자자를 유치

□ **(서비스 방식)** 주식과 ETF에 대해 부분(1주 미만) 주식 구매가능하며, 소액투자자의 투자금을 모아 주식을 매수하는 시스템으로 구현

○ '잔돈 모으기'는 결제 후 남은 1달러 미만의 잔돈을 투자하는 기능, '자동 투자'는 정기적으로 일정한 금액을 투자하는 기능

- 구독료는 월 1달러이며, 1주 미만 투자가 가능한 주식계좌와 현금서비스(직불카드, 예금), 투자자문 서비스 등 제공

□ **(특화 서비스)** Stash플랫폼내 거래가능기업에서 직불카드로 결제 시, 결제 금액의 0.125%를 해당 기업 주식으로 제공하는 리워드 프로그램 운영

○ 특정 제휴 가맹점의 경우 결제금액의 최대 5%를 주식 리워드 제공, Stash 플랫폼내 거래불가능 기업(Local shop)에서 결제 시에는 ETF로 제공

- 프리미엄 서비스로 퇴직연금 계좌, 양육 계좌* 관리, 시장 보고서, 주식 리워드 2배 혜택 등 추가 기능 제공

* 부모가 자녀를 위한 자산을 관리하는 계좌로, 자녀에게 합법적 자산 증여가 가능하며, 학자금 등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가능

⑤ 투자지원(Investment tools) 사례: Xignite

설립연도	2000년	위치	미국 실리콘밸리
총투자유치금액	\$37.6M	투자자	Startup Capital Ventures 등 투자자 6명
인수회사	-	관련 규제당국	-
서비스분야	데이터 클라우드	월다운로드	-

□ **(회사 개요)** '00년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설립된 핀테크 기업으로, 금융 데이터 클라우드 회사로 발전

- Robinhood, Wealthfront와 같은 웰스테크 기업과 Blackrock, 찰스 슈왑 등 대형 금융회사를 포함 1,000곳 이상의 고객 확보

□ **(서비스 방식)** 전세계 자본시장과 시장 참가자들을 단일 규격의 API*로 연결하는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

*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는 개발자나 사용자가 운영체제와 프로그래밍언어를 제어할 수 있게 만든 기본 설계도

- 투자가능한 대부분 자산의 실시간 및 과거 시세 정보, 관련 공시, 뉴스, 상장 정보, 기관투자자 보유내역 등 기초 자료도 함께 제공

- 주식, 장외주식, ETF, 뮤추얼 펀드, 채권, 선물, 옵션, 외환 등 자산클래스별 고유가격이 있으며, 필요 데이터에 대해서만 가격 지불

□ **(특화 서비스)** 일반적인 사내 인프라 구축방식*은 회사가 직접 정보관리 인프라를 구축해야하는 구조, 관리의 비효율성 존재하나,

* On-Premise Infrastructure: 외부가 아닌 사내 소프트웨어를 활용하여 회사가 직접 정보관리, 호스팅, 방화벽 설치

- 클라우드 방식은 외부 전산 인프라를 이용하여 운영 위험 및 데이터 지연 감소, 비용 절감(20~40% 수준)을 가능케하는 구조로

- 온라인 중개 및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웰스테크업체들에게 비용절감을 통한 수수료 인하, 무료 정책을 가능하게 함

⑥ 포트폴리오 관리(Portfolio management) : Additiv

설립연도	1998년	위치	스위스 취리히
총투자유치금액	CHF21M	투자자	BZ Bank
인수회사	-	관련 규제당국	-
서비스분야	포트폴리오 관리도구	월다운로드	-

- **(회사 개요)** '98년 스위스 취리히에 설립된 자산관리 플랫폼 회사, 글로벌 IB, 보험회사, 자산관리자, 핀테크 업체 등이 주요고객
 - 자산관리 서비스 직접 제공이 아닌, 자산관리자, 금융회사가 고객 포트폴리오를 관리할 수 있는 도구(자산관리 플랫폼)를 제공
- **(서비스 방식)** 대표적인 자산관리 플랫폼으로 로보어드바이저, 하이브리드 로보어드바이저, 전문가 시스템을 제공
 - 실시간 제안, 포트폴리오 조정 기능을 통해 고객이 실시간 자문, 포트폴리오 확인, 투자 시뮬레이션 가능
 - 위험관리*가 가능한 전문가 시스템은 개별 고객 포트폴리오뿐 아니라 팀, 지역, 시장, 국가 단위 포트폴리오 분석 가능
 - * 포트폴리오 건전성 점수화, 복잡한 수익구조를 가진 구조화 상품에 대한 분석
- **(특화 서비스)** 자체 클라우드 시스템을 기반으로 한 Additiv 자산관리 플랫폼을 통해, 저비용으로 고객 맞춤형 자산관리 가능
 - 클라우드는 위치, 시장, 거래 데이터 등을 수집·분석, 분석한 정보를 포트폴리오 분석, 문서 관리 자동화, 법률 및 규제 환경 분석에 활용
 - 유럽연합 금융규제(MiFID II)에 맞는 프로파일링 서비스(비용관리, 거래기록 보존)를 제공*함으로써 업무 효율화 지원
 - * 유럽내 다양한 규모의 금융기관이 이용 가능한 높은 확장성을 가짐

3. 웰스테크 플랫폼의 최신 트렌드

- **(사회적 책임투자 확대)** 사회적 책임투자에 대한 인식 확대로 투자자들의 친환경, ESG 투자에 대한 수요가 증가
 - 무기·담배·알코올 등 제외한 윤리적 기업, ESG 정책, 긍정적 사회 변화를 이끄는 임팩트 등을 고려한 책임투자서비스(예, Hedgeable) 제공
- **(투명성 규제로 인한 기술혁신)** 웰스테크 플랫폼의 발전은 금융산업내의 자체 수요와 함께 규제강화도 중요한 요인
 - 금융위기 이후 규제 강화와 유럽의 MiFID II 등 투명성 규제 도입이후 내부 처리과정을 자동화하는 기술 혁신을 촉진
- **(디지털을 통한 간소화)** 최근 금융산업 전반에 걸친 디지털화는 거래, 결제, 보관, 자금 전송 등에서 절차의 간소화를 촉진
 - 웰스테크에서도 전자지갑(Digital Wallet), 플랫폼 등을 통한 금융상품 판매, 거래, 송금 기능이 발전하며, 자산관리 관련 절차 간소화
- **(고객 맞춤형 서비스 경쟁)** 고객들이 투자에 보다 능숙해짐에 따라, 고객 맞춤형서비스의 수준이 플랫폼 선택의 기준이 되고 있음
 - 예전에는 고객들이 특정 플랫폼에게 의존했다면, 플랫폼간 비교와 이동이 수월해지며, 고객의 니즈를 충족하기 위한 경쟁 확대
- **(수수료 경쟁 강화)** 기술발전으로 일정수준 이상의 규모의 경제를 달성한 플랫폼들은 수수료를 대폭 인하하거나 수수료를 면제
 - 소액투자 플랫폼의 경우 1주 미만으로 투자하는 경우 관리비용 증가로 높은 수수료를 받아왔으나, 점차 낮은 수수료로 서비스 제공

IV. 해외 금융투자업계의 웰스테크에 대한 접근방안

※ 플랫폼화로 산업간의 경계가 붕괴되며 기존 WM산업을 주도하고 있는 글로벌 IB와 자산운용사는 자체 솔루션 개발, 스타트업 투자, 핀테크와의 협업 등을 통해 대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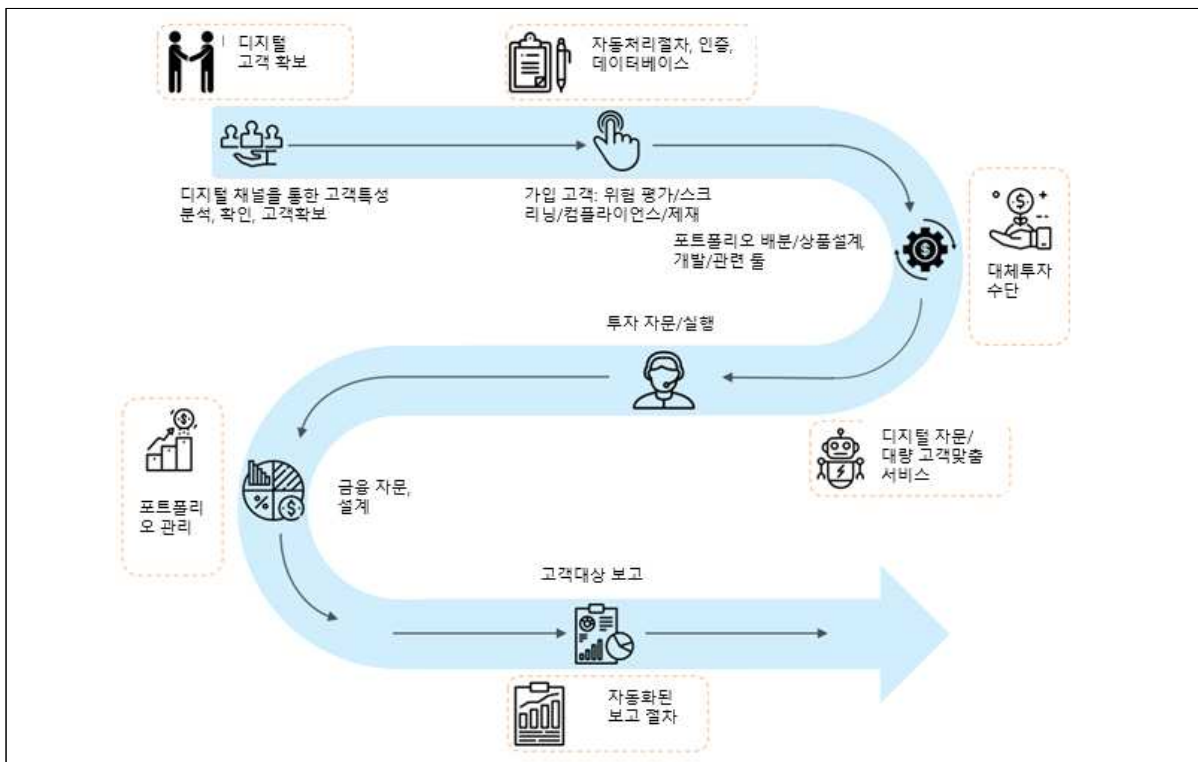
1. 해외 금융투자업계의 대응

□ (주요 특징) '08년 금융위기 이후 규제강화와 소비자들의 인식 변화, 비용 절감 등을 이유로 해외 금융투자회사들은 새로운 활로 모색

○ 기존의 기업금융, 트레이딩에 비해 주목받지 못했던 자산관리(WM)가 새롭게 부상*하며 WM분야의 전과정에 걸쳐 웰스테크 활용 증대

* 주요 글로벌 투자은행(12개)의 전체 수익 중 자산관리분야의 비중은 '10년 13% → '19년 22% → '20년 24%(예상)로 확대(자료:자본시장연구원)

【(그림-3) WM서비스의 주요 과정 및 디지털 기술 활용】



자료: Drake Star

⇒ 해외 주요 금융투자회사들은 ① 자체 디지털 자산관리 체계 및

솔루션 개발 ② 전략적 M&A, ③ 웰스테크와 제휴 등 다양한 방식으로 대응

2. 금융투자업계의 웰스테크 활용 사례

①-1 자체 디지털 자산관리 체계 구축

□ **(BofA)** 대중 부유층을 타겟으로 온라인 자산관리 브랜드인 원스톱 자산관리 플랫폼 Merrill Edge*를 출시('10.6월)

* 실시간 시장 데이터를 제공하는 Merrill Edge MarketPro, 직접 투자형인 Self-Directed 서비스도 제공

○ 주식, 채권, 펀드 등 대부분의 금융상품에 대한 서비스가 가능하며, Bank of America 그룹의 계열사별로 고객군을 나누어 타겟*

* 상업은행인 Bank of America는 대중소매층, 증권사인 Merrill Lynch는 대중 부유층, 신탁사인 US Trust는 부유층

- 전문가의 지원 정도에 따라 서비스를 ① 직접 투자형 ② 일임형 ③ 일임+맞춤자문형 으로 구분하며, 일임형은 RA로 발전('17.2월)

□ **(BlackRock)** 투자전반, 위험, 회계, 자산관리 기능을 가진 플랫폼인 Aladdin을 통해 자산운용사, 은행, 보험사 등 기관 대상 서비스 제공

○ 리스크 관리기능을 강화하여 포트폴리오 내 위험요인을 모니터링·분석·평가하고 자동화 프로세스*를 통해 미들백오피스에서도 활용

* 로보틱 프로세스 자동화(RPA)를 통해 미들·백오피스에 필요한 리스크·익스포저 보고서 자동으로 생성

- Aladdin 엔진을 활용하여 다양한 고객 맞춤형 서비스 제공

- **(Aladdin Wealth)** 사업 리스크관리, 포트폴리오 구축 및 분석, 판매관리 등
- **(Future Advisor)** 로보 어드바이저
- **(IRetire)** 은퇴 자산관리
- **(Cachematrix)** 은행, 기업 등에게 체계적 현금관리 서비스 제공
- **(Provider Aladdin)** 수탁은행의 수탁업무 지원하는 블록체인 기반 플랫폼
- **(Advisor Center)** 시나리오 분석, 세금관리와 같은 자산관리역량 강화

①-2 자체(In-house) 솔루션 개발

- **(JP Morgan)** 기관대상 정보·분석서비스 공유를 위한 B2B고객 대상 오픈API(JP Morgan Developer)와 리테일 주식펀드 매매 플랫폼(You Invest) 운영
 - 정보보안 강화를 위해 연간 6억달러 투자, 약 3천여명 사이버보안 전문가를 신규로 채용하였으며, 폐쇄형 블록체인 프로젝트* 진행중
 - ※ (Quorum컨소시엄) 이더리움에 기반을 둔 폐쇄형 블록체인 컨소시엄으로 별도의 합의된 알고리즘인 QuorumChain과 Raft를 사용, '17.11월V.2.0 공개
 - 이 밖에도 자연어 처리, 머신러닝 등 AI기반 분석모델(Themebot)과 딥러닝 기술을 기반으로 자동 주식거래 프로그램(LOXM) 개발·운영중
- **(Morgan Stanley)** 자산관리 전반에 걸쳐 최첨단 IT기술을 접목하는 프로젝트인 'Next Best Action'추진과 함께 다양한 플랫폼 개발
 - 머신러닝 고객관리 및 분석 지원, AI활용을 통한 리서치 지원, 고객 유연장, 세금 서류와 같은 방대한 서류작업 업무 자동화
 - 로보어드바이저인 'Access Investing', 리테일 자산관리용 'Wealth Desk', ESG관련 투자 tool인 'Impact Quotient Tool' 등 플랫폼 개발
- **(Charles Schwab등)** 미국 최대 온라인 증권사인 찰스 슈왑, 글로벌 자산운용사인 뱅가드, 피델리티 등은 자체 로보어드바이저 개발
 - 로보어드바이저에 휴먼어드바이저를 결합한 하이브리드 서비스를 추가하며 웰스테크 회사들과 경쟁속에 업계 선두 유지

【(표-2) 미국 주요 금융투자회사들의 자체개발 RA서비스】

로보어드바이저	제공회사	최소투자금액	ETF보수	포트폴리오 구성
Intelligent Portfolio	찰스슈왑	\$5,000	0.04~0.48%	최대 20개 ETF
Porfolio Builder	피델리티	\$2,500	0.07~0.48%	2~10개 ETF
Personal Advisor	뱅가드	\$100,000	0.05~0.19%	고객 맞춤

자료: 금융보안원 자료 재인용

② 전략적 M&A

- **(Goldman Sachs)** 퇴직연금시장 성장성에 주목하며 퇴직연금 전문 로보어드바이저인 Honest Dollar를 인수('16.3월)
 - Honest Dollar는 중소기업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월 8달러 수준의 낮은 수수료로 자동화된 온라인 연금운용 서비스를 제공
 - **(State Street)** 투자관리의 프론트 오피스 툴과 솔루션 업체인 Charles River에 26억 달러를 투자하여 인수('18.7월)
 - 미들, 백오피스 시스템과의 전산적 통합을 통해 자산운용사와 자산 보유자들을 위한 글로벌 Front-to-Back 오피스 플랫폼 구현 목적
 - **(Capital One)** 로보어드바이저 서비스를 위해 United Income을 인수하며 은퇴플랜을 전문으로 하는 로보 자문 서비스 제공('19.8월)
 - 이와 함께 개인 정보보호 관련 스타트업 Confyrm을 인수하여 의심스러운 계정 활동에 대한 알림(Alert) 제공
 - **(BlackRock)** Future Advisor을 인수('15년)하며 RA시장에 본격 진출했으며, Aladdin플랫폼 경쟁력 강화를 위해 M&A 적극 활용
 - Merrill Lynch Investment Managers('06년), Barclays Global Investors('09년), Scalable Capital('17년), eFront('19년) 등 인수
- ※ 미국 투자자문업계의 M&A 활동은 코로나19 위기로 주춤하였으나, '20.3분기 크게 반등하며 성장추세 지속

【(그림-5) 미국 등록자문업자(RIA) M&A 딜】



자료: Forbes 기사 재인용

③ 웰스테크업체와 제휴

□ **(Morgan Stanley)** 고객이 보유한 전체 금융자산 포트폴리오를 통합 관리하고 모니터링 하는 웰스테크업체인 Addepar*와 제휴

* 데이터 집계, 분석 및 성과보고를 전문으로 하는 자산관리플랫폼 (B2B영업)

○ 또한 리서치 부문 강화를 위해 주식분석에 특화된 통합적 예측모델을 제공하는 Visible Alpha*와도 제휴

* '15년 뉴욕에 설립된 리서치 전문 솔루션 제공 플랫폼(B2B영업)

□ **(Wells Fargo)** 로보어드바이저 서비스 강화를 위해 온라인 투자자문 업체인 SigFig*와 제휴하여 하이브리드형 서비스 론칭('17.11월)

* '07년 위키인베스트로 설립되었으며, '11년 SEC등록된 로보어드바이저로 '12년 Sigfig로 사명 변경 후 주요 금융기관 계좌와 연계하여 서비스 제공

○ 로보어드바이저와 휴먼전문가가 결합된 하이브리드형 RA서비스로 투자금을 알고리즘이 아닌 투자전담조직에서 운용

□ **(Vanguard)** 블록체인을 활용한 고객과의 정보공유 강화를 위해 CRSP*(Center for Research in Security Prices)와 Symbiont** (블록체인 핀테크)와 제휴

* '60년 설립된 시카고 경영대학원 데이터 센터로 '20.1월 CRSP.LLC로 법인 설립

** '15년 설립된 뉴욕 월스트리트의 블록체인환경을 선도하는 회사로 NASDAQ과도 제휴

○ 모든 시장참여자들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된 CRSP 인덱스 정보를 블록체인망을 통해 즉각적으로 공유할 수 있도록 구현

- (Citi) 컴플라이언스 체계를 강화하고자 '17.1월 Behavox*과 전략적 제휴를 체결, 동사에 2천만달러를 투자

* '15년 영국에서 설립된 행동분석 기반 컴플라이언스 기술 핀테크업체

- Citi는 직원들의 업무행태에 대한 빅데이터 기반의 체계적 모니터링 분석을 통해 사내 컴플라이언스 체계 강화

V. 웰스테크 관련 법령 및 규제

※ 로보어드바이저 등 웰스테크의 금융서비스 규제는 글로벌 규제이슈 중 하나이며, 지역별로 접근방식 차이 존재하나, 사이버보안 관련 규제는 강화되는 추세

1. 주요 국가별 금융서비스 규제

① 미국: SEC(증권위원회), FINRA(금융산업규제기구)

- 미국은 기술기반 회사의 금융서비스를 기존 자문업자 규제나 브로커-딜러 규제와 동일하게 간주하고 해당 법과 규제 적용
 - 미국에서 브로커-딜러와 자문업을 겸업하는 플랫폼들은 SEC와 FINRA의 규제를 동시에 받는 규제부담으로 전업 자문업자로 전환하는 사례 증가('18.6.7, Investment News)
- 고객에게 서비스 제공시 적합성 원칙, 고객의 최선이익(Best Interest)와 거래기록에 관한 보관의무(SEC Rule 17-4a) 준수

※ 미국 웰스테크업체에 관한 사항은 SEC의 투자자문업자 공시사이트(Investment Adviser Public Disclosure, IAPD)와 FINRA의 BrokerCheck을 통해 확인 가능

② 영국: FCA(금융행위청)

- 미국과 달리 영국은 기술기반의 투자자문서비스 회사에 대해 신규 진입 시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규제 유예를 적용

* 新기술·서비스 분야의 원활한 시장 진입을 위해 일정기간 규제를 면제·유예하는 제도

- '15년 영국 FCA는 로보어드바이저 서비스의 도입을 테스트베드 마련을 통해 지원하고, '17년 로보어드바이저 가이드런스*를 발표

* Streamlined advice and related consolidated guidance (FG17/8)

- '17년 가이드런스 발표 후 실시된 FCA의 업계 점검에서 온라인자문업체들의 불명확한 서비스수수료 체계를 확인하고 이에 대해 시정 조치를 진행

③ 유럽: ESMA(증권감독청)

- EU는 미국과 유사하게 중개, 외환중개, 투자자문분야의 라이선스를 취득한 웰스테크업체를 업자로서 규제(Mifid에 근거)

- 업권별 감독청인 ESMA(증권), EBA(은행), EIOPA(보험)는 공동으로 금융자문의 자동화에 관한 보고서* 발표

* Report on automation of financial advice('18.9월)

- EU내 감독기관 중 독일, 네델란드, 룩셈부르크, 스웨덴의 감독청들은 로보어드바이저 지원을 위한 별도의 정책 발표

④ 호주: ASIC(호주증권투자위원회)

- 호주는 '16.3월 디지털 금융상품자문에 대한 규정*을 제정하였으며, 영국과 유사하게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시행('16.6월)

* Regulation Digital Financial Product Advice('16.3월)

- ASIC은 디지털을 통한 리테일 대상 자문에 관한 가이드언스를 통해 원칙중심, 기술중립(technology-neutral*)적인 방식의 규제를 도입

* 특정기술이 드러나거나 특정기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정의되지 않도록 규제

⑤ 아시아: SFC(홍콩증권선물위원회), MAS(싱가포르금융청)

- 홍콩과 싱가포르 역시 가이드라인* 제정을 통해 RA서비스에

대한 규제를 적용하고 있으며, 자격요건 간소화 등 지원방안 마련

* Guidelines on Online Distribution and Advisory Platforms

- 홍콩 SFC의 '적격법인(suitably-qualified person)'테스트 절차 운영, 싱가포르 MAS의 자문업자 자격 취득 시 요건 완화* 적용

* 회사 경력(Track-record) 면제, 非고난도 상품 서비스시 요건 완화 등

2. 개인정보보호, 사이버보안 규제

- **(미국)** 美SEC에 등록된 브로커-딜러, 로보어드바이저 등은 고객 정보 보호 관한 기본 규정인 'Regulation S-P*'를 준수해야 함

* 고객데이터 보안과 보안의 완결성 유지방안을 포함하며, 고객정보 공유정책과 고객의 권리에 대해 알리는 통지(최소 서비스시, 연단위) 의무 등 명시

- 미국의 금융기관들은 고객 ID 도난방지를 위한 연방거래위원회(FTC)의 'Red Flag Rule'을 따라야 하나, 신규 로보어드바이저 등에는 미적용

- 이에 따라, SEC는 로보어드바이저 등 신규 웹스텍 업체들을 위해 'Regulation S-ID'를 추가로 제정, 상기 규정 위반시 제재금 부과*

* FINRA는 개인정보처리를 위한 방화벽 구축과 사용자명, 패스워드 체계상 문제 등 'Regulation S-P' 위반사례가 발견된 브로커-딜러에 \$175,000의 벌과금 부과

- **(유럽)** EU위원회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일반 규정(GDPR*,18.5월)은 EU내 금융서비스업자의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기본규정이며,

* 규정으로 EU각국의 입법절차 없이 적용되며, 개인정보에 대한 동의 요건 강화, 삭제권(Right to be forgotten), 개인정보 반환 등 정보 주체의 권한을 강화한 것이 특징

- 최근 EU 사이버보안의 인증체계를 강화하는 새로운 법안인 'EU 사이버보안법'을 승인(19.7월)하고, 사이버보안기구(ENISA)의 권한 강화

- EU의 지속적인 관련 규제 강화는 IT기반의 미국과 아시아 금융서비스

회사들의 유럽 진출 견제와 유럽의 스타트업 보호를 염두해뒀다는 평가

- **(국제기구)** 개인정보와 사이버보안에 관한 규제는 '10년대 이후 글로벌 자본시장에서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주요 이슈이며,
 - 글로벌 자본시장에서 활용되는 사이버 보안 핵심 기준으로는 미국립표준기술연구소(NIST), CPMI-IOSCO*, ISO의 원칙 등이 있음
- * 자본시장 인프라의 사이버 회복력에 관한 가이드선스(CPMI-IOSCO Guidance, '16년 제정)

V. 시사점

- 아시아 지역의 자산관리시장은 미·영, 유럽에 비해 높은 성장기 기대*되며, 글로벌 금융기관들은 지역내 비즈니스 확대를 모색중
 - * '25년까지 미국/영국 연19.5%, 유럽 연18%, APAC 연22% 성장예상 (AUM기준, 자료:BCG)
- 초저금리시대, 은퇴세대 증가, 퇴직연금 확대 등으로 향후 국내 자산관리시장의 성장가능성 역시 매우 높은 상황
- ⇒ 국내 금융투자업계의 자산관리 수익 비중 확대와 아시아 지역내 경쟁력 제고를 위해 **웹스테크 기반의 WM서비스 강화 필요**
- 미국의 바이든 정권출범, EU연합의 '그린딜', 우리나라의 '그린 뉴딜' 추진 등 친환경, ESG투자 등 새로운 트렌드 확대 전망
 - 코로나19 이후 비용 절감에 민감하고, 플랫폼에 친화적인 밀레니얼 세대의 진입 확대는 초고액자산가, 은행 중심인 WM산업 변화의 계기
- ⇒ 친환경, 사회책임 투자, 소수단위 투자 등 최신 글로벌 트렌드와 소비자의 니즈에 맞는 **다양한 자산관리 플랫폼 개발 필요**
- 우리나라의 IT기술과 플랫폼 기반 기술은 세계적인 수준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플랫폼은 이미 경제 전반에서 활용되고 있음
 - 금융투자업계에도 플랫폼에 기반한 다양한 서비스가 출시*되고

있으나, 플랫폼 관련 규제체계 마련은 다소 부족한 상황

* AIM투자자문('16년),뱅크샐러드('17년),카카오페이증권('20년)

⇒ 웰스테크는 위협이 아닌 도약을 위한 필수 요소로, 업계내 활발한
제휴와 협력이 일어날 수 있도록 선제적인 규제체계 마련 필요*

* 해외에서는 핀테크 규제에 감독기구/자율규제기관이 적극 참여하고 있어
감독기구와 협회의 웰스테크 플랫폼 관리를 위한 공적/자율 규제체계 마련 필요